

---

# 기획논문

---



## 만주어의 자료와 문법 연구

만주통구스어파는 튀르크어파 및 몽골어파와 함께 알타이어족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부어군의 4개 언어(어원, 어윙키, 솔룬, 네기달)와 남부어군의 7개 언어(나나이, 율타, 울치, 우디허, 오로치, 만주, 시버)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언어는 구어 사용자의 수가 적게는 수 명에서 많아도 수만 명에 지나지 않고, 아래 세대로 언어가 전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절멸 위기의 언어’(seriously endangered languages)로 분류할 수 있다. 외국 학자에 의하여 신뢰할 만한 연구가 축적되었으며, 한국에서도 만주통구스어파를 포함하는 알타이언어들에 대한 대규모의 현지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지만, 이들 언어에 대한 구어 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한편 만주통구스어파의 언어 가운데 유일하게 고유의 문자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한 전통을 가진 언어가 만주어이다. 청나라 태조인 누르하치의 명에 의해 1599년 위구르식 몽골문자를 차용한 만주문자가 제정된 이후, 청나라가 멸망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만주문자를 이용하여 문어 자료가 작성되었는데, 21세기 현재 만주어 구어 사용자는 손으로 꼽을 정도이지만 방대한 양의 문어 자료는 다 발굴되지 못한 채 아직까지 연구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심각한 절멸 위기에 처한 만주통구스 언어들에 있어서 만주어 문어 자료는 간접적으로나마 이들의

직관을 살필 수 있는 보충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이전 시기의 고행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언어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발달 과정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만주통구스어파의 언어에 대한 연구에서 만주어 문어 자료의 중요성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만주어 문어 자료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서울대학교 언어학과가 주축이 된 만주어 연구 모임에서는 수년에 걸쳐 만주어 문어 자료를 로마자로 전자하여 전산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들 문어 자료는 만주문자가 제정된 직후인 17-18세기에 작성된 자료로서 초기의 만주어 문어를 반영하는데, 특히 입관(入關) 이전인 1607년부터 1636년까지 만주족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만문노당』(滿文老檔)은 가장 초기의 만주어 문어 자료로서 일관된 언어 사실을 반영하며 한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집담회는 만주어의 전산 자료 확보와 문법 현상 규명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그 결과 집필된 세 논문 가운데 “『滿文原檔』에서 『滿文老檔』으로의 내용 변경에 관한 연구”는 18세기 후반에 증초된 『만문노당』에 반영된 만주어 문어가 저본이 되는 17세기 초반의 『만문원당』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만문노당』의 자료적 성격을 규정하는 기초 작업의 성격을 가지며 다른 두 편의 연구는 대량의 코퍼스에서 추출한 용례를 이용하여 만주어 문법을 기술하였는데, “만주어 문법서에서 기술한 -ra와 -ha의 의미: 시제(時制)인가 양상(樣相)인가”에서는 만주어에서 기능 부담량이 높은 문법 형태소 -ra와 -ha의 의미를, “만주어 복합문의 대격 주어 현상 연구”에서는 대격 형태소 -be가 주격으로 해석되는 용례를 주로 검토하여 만주어의 문법 특성을 고찰하였다.

김주원